



드뮤어·요노 등
트랜드 패션
마케팅
너



Life

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화 박차
L2



14일 오후 어르신들이 솔밭근린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현정 기자

사계절 녹음 가득... '1000그루' 소나무 숲에 빠져볼까

♥ 되살아나는 서울

119 강북구 '솔밭근린공원'

서울 강북구에는 '우이동'이란 마을이 존재한다. 도봉산 산봉우리 가운데 소의 귀처럼 생긴 쇠귀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 지명 사전'에 따르면, 조선 시대 초부터 우이동은 한성부 동부 성외 지역이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서울 행정구역을 5부 8면제로 개편하면서 이 마을은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우이리가 됐다. 광복 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한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우이리는 시에 재편입되고 새롭게 생긴 성북구로 들어가게 됐다. 우이동은 그로부터 24년 뒤인 1973년에 신설된 도봉구에 흡수됐다가, 1995년 강북구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속하게 됐다.

◆주민이 지켜낸 소나무 숲

지난 14일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솔밭근린공원을 찾았다. 우이신설선을 타고 4.19민주묘지지역에서 하차해 2번 출구로 나와 도봉도서관 방향으로 308m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는 건 벤치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고령자들이다. 사교성이 있는 노인들은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눴고 낮을 가리는 어르신들은 입을 꼭 닫고 앞만 바라봤다. 하릴없이 시간을 축내는 모습이 신선 놀음을 하는 것 같아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치밥을 먹으며 도시를 배회하는 비둘기처럼 보여 짝하기도 했다.

가을의 낙엽처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공원의 소나무들은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굴하지 않고 짙은 녹음을 뽐냈다. 솔밭공원은 서울 유일의 평지형 소나무 군락지로 60~100년생 소나무 1000여그루가 자라나고 있다.



시민들이 솔밭근린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

강북구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당초 사유지였던 소

사유지였던 소나무 자생지, 근린공원으로 조성 60~100년생 소나무 외 34만본 초화류 식재해 산책로, 생태연못 등... 곳곳에 '소나무 시' 전시

나무 자생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서울시로부터 매입비 일부를 지원받아 160여억원을 투입해 공원 녹지를 조성했다. 구는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하고, 옥잠화, 노루오줌, 원추리, 하늘매발톱, 금낭화, 비비추 등 약 34만본의 초화류를 추가로 식재해 지난 2004년 1월 28일 솔밭근린공원을 개원했다.

소나무 숲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 침엽수와 어우러진 단풍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노랑과 붉은 물결을 이뤘다.

◆자전거·배드민턴·장기... 놀 거리 가득

솔밭근린공원에는 생태 연못, 그늘 시렁, 산책로, 데크 광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 무대, 놀이 마당, 바닥분수 등이 설치됐다. 이날 공원으로 나왔다 나온 사람들은 제 또래들이 즐기고 있는 놀이거리를 찾아 함께 어울렸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거북이 등딱지 같은 가방을 놀이터에 내팽겨쳐놓고 그네를 향해 달려갔다. 신나게 노는 모습을 구경하던 엄마들은 목마르다고 징징대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음료를 주문하러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은 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했고, 20~30대 청년들은 헤드폰을 머리에 얹고 빠른 걸음으로 산책했다. 중장년층은 둘 혹은 넷씩 짝을 이뤄 배드민턴을 즐겼다.



어르신들이 솔밭근린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할아버지들은 콜라 캔처럼 생긴 벤치들이 놓인 쉼터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한 수 물러줘", "에헤이~" 하며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는 익살스러운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솔밭근린공원만의 볼거리로는 '소나무 시'가 있다. 서울 시내 공원 중 소나무를 주제로 한 시가 가장 많이 전시됐다. '하고 싶은 말을 / 죄다 안으로 삭여서인지 / 바늘처럼 돌아난 진초록의 / 무성한 잎, 그 입술들 //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달라져도 / 말 없는 말들만 낮지만 높게 쟁이듯이 / 등 구부린 채 하늘을 끌어안는 저 나무들.'

솔밭근린공원에서 소나무 숲길을 거닐다 만난 아름다운 시구절들이 삶을 예찬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넷마블조정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12개 메달 획득 /사진 뉴시스
▲ 스페인 미드필더 로드리, 2024 발롱도르 수상... '세계 최고 축구선수' 영예

▲ 경복궁 '건청궁'·왕실 휴식공간 '향원정' 특별 개방...내일부터 선착순
▲ 남산골한옥마을서 '제2회 월드판소리페스티벌'



▲ NBA 레이커스, '부커 33점' 앞세운 피닉스에 시즌 첫 패배 /사진 뉴시스
▲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3차전도 양키스에 4-2 승리...우승까지 단 '1승'